

[시티 & 피쳐]

■광주지하철 농성역 '발명 페스티벌' 가보니

'콩싱카' '보이는 티슈통'...
톡톡 튀는 발상
세상 바꾸겠네!



22일 '톡톡 발명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학생들이 발명한 생활용품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월은 발명의 달. 청소년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광주지하철 농성역 광장에서 열려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와 특허청이 마련한 '톡톡 발명 페스티벌'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6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벤트가 제공된다. 청소년들에게 발명에 대한 꿈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제1관 전시의 장에는 비행기·자동차·전차·선박 프라모델 100여점과 무선조종이 가능한 자동차·비행기 40여점이 전시돼 있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모두 전문가들이 만든 것으로, 워낙 정밀하고 섬세하게 제작돼 실물과 똑같아 보

인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만든 발명품 전시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린이들과 함께 야외 등지로 놀러갈 때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키보드와 스키이동공을 하나로 만든 '콩싱카', 티슈통 안에 화장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티슈통 일부에 투명 비닐을 부착한 '보이는 티슈통' 등 발상이 기발한 작품들이 많다. 제2관 교육의 장에는 '교통문화 수단 패널 전시'가 열려 자동차·비행기·로켓의 작동원리를 손쉽게 알 수 있다. 또 남부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저연비 자동차, 전남과학대 학생들이 만든 무인공중촬영 시스템도 만나볼 수 있다. 자연비 자동차에 탑재해 기비촬영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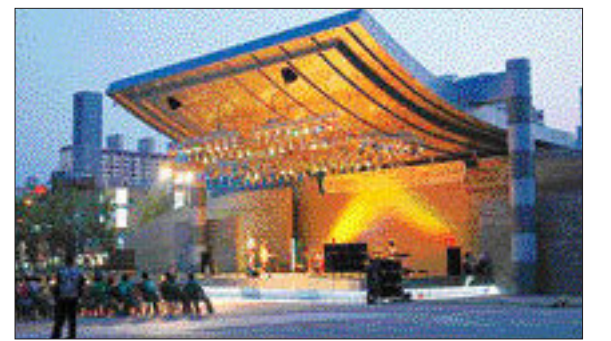
하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가 최근 실시한 발명신포 경진대회 입상작품 전시돼 있다. 작품엔 발명상을 받은 초·중·고생들의 꿈이 담겨 있다. 나무젓가락과 껌, 지퍼, 지우개 달린 연필 등을 누가 발명했는지 알려주며 흥미를 더해준다. 제3관 체험의 장에는 봄슬레이 트레이크 설치돼 있어 봄슬레이 경기를 체험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팽이놀이 인삼 블레이드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무선조종되는 로봇 '사피언'과 로봇공용 '랩터'도 깜찍한 동작으로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황태기자 hwangtae@

이외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출원시스템에 접속해 특허출원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고 자기이름이 새겨진 특허증을 발급받는 '특허넷 가상체험' 이벤트와 발명캐릭터 경진대회 입상작 전시도 눈에 띈다. 주최 측은 행사 마지막날인 오는 27일 발명 개사구 및 발명 악기 경연대회, 발명OX퀴즈, 패품을 이용한 공연하는 '상상놀이단'의 타악기 공연, 청소년들이 마음껏 개를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개짖 페스티벌'을 갖는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이화신 회장은 "모든 시민과 함께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태기자 hwangtae@

시청 앞 '야외음악당' 문 연다

객석 2,000석 규모... 내달 1일 개관

광주시 야외음악당이 다음달 1일 개관한다. 광주시는 22일 "시청 앞 문화광장에 건립 중인 '야외 음악당'이 최근 각종 무대 설비 성능 점검을 위한 두 차례의 '시운전 공연'을 마치고 6월 1일 정식 개관 한다"고 밝혔다. 야외음악당은 광주시청 문화광장 2천평 부지에 2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47평·이동식 객석 2천석 규모로 지어졌다. 또 48채널의 음향 콘솔과 80KW의 대용량 스피커, 15 세트의 조명버튼, 4개의 공연자 대기실 등을 갖췄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0일 시립 국악관현악단의 '국악으로 엮는 퓨전 음악회'를 연데 이어 14일에는 광주연예협회 주관으로 인디밴드의 특음악과 브레이크 댄스가 어우러진 '청소년 음악페스티벌' 등 2차례의 시운전 공연을 성공



작으로 마쳤다. (사진) 광주시 관계자는 "공연 자격증 세부 기준 및 지침은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며 "스튜디오 공연에서 대형가수의 초특급 공연까지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서구 금호지구~서광주역 남구 백운주유소~회재로 광주 신설도로 개통

광주시 남구 백운주유소~회재로, 서구 금호지구~서광주역 구간 등 2개 구간의 도로가 개통돼 백운광장과 금호지구 일대 출퇴근 시간 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2일 "남구 백운주유소~회재로, 서구 금호지구~서광주역 구간 등 2개 구간의 신설 도로를 오는 24, 27일 각각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장 600m 왕복 4차선 도로인 백운주유소~회재로간 도로는 47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이 도로의 개통으로 서문로에서 백운광장을 통과하지 않고 중앙-금호지구의 우회 통행이 가능해진다. 연장 1천180m 왕복 6차선인 금호지구~서광주역(제2순환도로)간 도로는 아파트가 밀집된 금호지구에서 제2순환도로를 직접 연결, 이 일대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시 기업지원 정보 책자 발간 배포

광주시는 22일 전략산업기획단과 공동으로 지역내 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 장비 현황을 비롯, 지원사업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된 '2006년 기업지원 POOL'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모두 380쪽의 책자는 제1장 광주시역경제 일반 현황과 2006년 광주시시정시책, 제2장 광주지역 기업지원기관 소개, 제3장 정부 부처별 2006년도 기업지원 사업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내 (Living Guide) and 신고 (Report).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금강산 평화열차 타고 "대~한민국" 내달 7일까지 선착순 접수...24일 온정각서 韓-스위스전 응원. Includes details about the train and ticket information.

월드컵 한국 대 스위스전을 응원한다. 열차로, 버스비, 입국료, 숙박비 등을 포함한 운임(광주역 출발 기준)은 어른 1인 31만3천900원, 청소년 26만3천900원, 노인(65세 이상) 30만3천800원, 초등생 이하 어린이 22만2천600원이다. 접수 6월 7일까지 선착순 350명. 문의 광주역 고객유치팀(062-605-2209). /이승배기자 lsb54@

Large advertisement for travel agencies including 'Very Good Tour' and 'Japan' with various travel packages and pr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정우부동산' (Jeongwoo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 different areas like '장성지역' and '국립공원'.